

대구교도소 후적지변신 ‘Re:화원’ 개방

25,460㎡ 규모로 산책로·잔디광장 등…1.3km 야경 특화거리 탄생



달성군은 대구교도소 이전으로 폐쇄되었던 (구)대구교도소 공개공지에 야간경관 특화거리와 ‘Re:화원(부제: 달린 시간을 지나, 다시 피어나는 숲)’을 조성해 정식 개방했다. ‘Re:화원’은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구)대구교도소 외부의 유휴지를 개발하여 우범화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과 편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시설명 ‘Re:화원’은 오랫동안 폐쇄되어 있던 공간이 군민들에게 열린 숲으로 되 돌아왔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다. ‘Re:화원’은 2023년 6월 조성 사업 계획 수립 이후 2025년 8월 착공돼, 지난 10월 말에 열린 ‘Re:화원 숲속 음악회’를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개방됐다. 부지 면적은 25,460㎡에 달하며, 이 중 녹지공간은 14,315㎡,

주차장은 11,145㎡이다.

주요 시설로는 945m 길이의 마사토 산책로, 204면 규모의 주차장, 잔디광장, 세목장 등이 조성됐다. 특히, 주차장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상생형 시설로 운영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도소 외곽의 어두운 거리를 따라 조성된 ‘야간경관 특화거리’는 ‘Re:화원 산책로’를 포함해 약 1.3km 구간에 걸쳐 연결된다. 도심 속에서 자연과 도시의 경관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 공간은, 새로운 걷기 명소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한, 현재 ‘Re:화원’에 크리스마스 경관조명 설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조명은 다가오는 연말에 공개돼,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연말 분위기와 야간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재훈 군수는 “화원의 새로운 쉼터로서 군민 모두가 걷고, 쉴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윤석 기자

CES 2026 최다 혁신·최고혁신상 수상

12개 부산기업 혁신상·최고혁신상…인공 지능·로봇·첨단기술 위상 입증



부산시는 내년(2026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인 ‘CES 2026’을 앞두고 12개 부산기업이 ‘CES 혁신상·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은 ▲㈜씨아이티(반도체 패키징용 초평단 구리 증착 유리) ▲㈜데이터플레이어(선박식별 및 탄소배출 모니터링 플랫폼) ▲㈜투웬스인터랙티브(LiDAR 센서 활용 증강현실 디지털 체육 플랫폼) ▲㈜사프고트(AI, IoT활용 재난안전시스

템) ▲㈜비전테크(누설전류제한 비상수 구조 차단기) ▲㈜허브플랫폼(피넛켓-고양이 식별 인식/지정형 자동 스마트 급식기) ▲㈜파워쿨(파워쿨 핸디 2026- 하이브리드형 휴대용 에어컨) ▲㈜루턴테크놀로지(‘뷰엑스’- LiDAR 소프트웨어 통합개발 플랫폼) ▲㈜모스(올인원 음악 플랫폼) 등 10개 기업이며, 1개 기업은 ‘CES 2026’ 현장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기업은 ▲㈜크로스하브(블록체인 기반 4세대 하이브리드 신원인증) ▲㈜

이우유 기자

2025울산광역시 자원봉사 대축제 개최

(사)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는 7일 오후 7시 KBS울산홀에서 ‘2025 울산광역시 자원봉사 대축제’를 개최한다. 행사는 나눔과 배려로 울산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우수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김두겸 울산시장, 이성룡 울산시의회장, 김종길 울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해 올해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40시간 이상인 개인 봉사자들과 지역사회에 꾸준한 봉사를 이어가고 있는 사회공헌 협력기업·공공기관·온기나눔 추진본부 참여기관 임직원 등 2,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자원봉사자 활동 영상 시청, 유공자 표창 수여식,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유공자 표창은 총 43명으로 울산시장 표창 37점(개인 31, 단체 6), 울산시의회 의장상 표창 6점(개인 6)이 수여된다. 이어 올 한 해 다양한 곳에서 온정을 나누었던 온기나눔 자원봉사 활동 영상을 시청하고 장민호·전록담 등 인기가수를 초청해 축하공연도 마련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덕분에 울산공영축제, 울산불꽃축제, 깨끗데이 운영 등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 낼 수 있었다”라며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봉사에 온 자원봉사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자원봉사 대축제와 연계해 울산문화공원에서는 오전 10

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나눔:ON 페스타’가 부대행사로 함께 열린다. ‘나눔:ON 페스타’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는 체험형 나눔 축제로, 현장에서 자원봉사 참여 방법 안내, 사회공헌 및 지역 특화 봉사활동 체험, 기부와 나눔 참여, 전시, 대형 자원봉사 부부마블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2024년 말 울산 온기나눔 추진본부 출범 후 새롭게 기획한 이번 프로젝트는 2025년 온기나눔 나눔행사의 성과공유회이기도 하며, 지속가능한 나눔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연대 강화라는 측면에서 한층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호근 기자

경상북도, 허난성과 항공·물류 협력 가속한다

리타오 중국 허난성 부성장 경북도 방문, 자매 결연…올해로 30주년



양 지역의 문화적 유대와 교류 성과를 되새겼다. 이후, 리타오 부성장 일행은 명인안동소주 공장을 시찰했다. 허난성은 중국의 대표적인 백주(白酒) 생산지로, 두강주(杜康酒)와 양사오주(仰韶酒) 등 명주(名酒)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일행은 안동소주의 제조 과정을 세심히 살펴보고, 전통주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확대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경상북도와 허난성은 1995년 자매결연 체결 이후 30년간 행정, 경제, 산업,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해 왔다. 특

히 올해는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상호 방문 및 공동 행사를 통해 양 지역 간 협력과 유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상북도와 허난성은 지난 30년간 꾸준한 교류를 통해 신뢰와 우정을 쌓아왔으며, 앞으로 양 지역은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주에서 2025 APEC 정상회의와 한중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이를 계기로 경북도는 중국과의 경제·문화 협력 및 지방정부 간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상북도는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2026년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총 4개 지구가 최종 선정되어 지난해 대비 150억 증액된 600억 원을 확보했다.

한윤석 기자

학교급식비 단가 120원 인상 등 교육행정협의회 합의

경상남도, 물가 인상을 반영한 2026년 급식단가 3.85%, 120원 인상

경상남도는 ‘2025년 경남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경남도교육청과 내년도 학교 급식 식품비 단가 인상 등 7건에 합의하고, 교육정책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교육행정협의회는 도와 교육청이 교육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력 기구다. 합의 사항은 총 7개다. 첫째로, 2026년도 학교급식 식품비 급식단가는 물가 인상을 3.85%를 반영해 120원 인상한다. 급식비 재원 분담률은 2024년

합의에 따라 교육청과 같은 비율로 분담한다.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청에서는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교육과정에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 진로 탐색 교육과 연계해 도내 민간정원을 진로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e스포츠가 2026년 전국소년체전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경우, 교육청에서 경남 대표 학생 선수 훈련비와 입상 학생

과 지도자에게 장학금과 포상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개편한 로컬유향 활성화 사업이 시작된다. 사업 대상은 군 지역의 소멸 위기 마을과 폐교 직전 작은 학교에서 시 단위 학생 수 급감 위기 학교까지 확대했다. 정주 환경 개선, 특색교육과정 운영 등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이 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학대처벌법’ 상 교내 아동학대 신고 의무

자면서도 무고성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 이에, 시군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기 전, 아동학대 사례 판단 과정에서 교사와 아동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정보연계 협의체를 통한 시군-교육청 간 소통·협력에 강화하기로 했다. 농어촌 초·중학생 통학 편의 제공 등 공급학교 운영·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2개 사업이 포함된 3,887억 원 규모의 2026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도 합의했다.

최성룡 기자

행복한 복지 영양군, 제2회 사회복지박람회 개최해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복지 영양! 다 함께 만들어 가요.’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6일 영양군청 앞 잔디광장 일원에서 ‘제2회 영양군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영양군이 주최하

고 영양군사회복지사협의회가 주관하며, 지역 내 복지기관·단체·사회복지사 및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복지 나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올해 박람회는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복지 영양! 다 함께 만들어 가요.’를 주제로, 행정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지역복지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으며, 특히, 올해 초 영양군이 겪은 산불 피해 당시 복지인·자원봉사자·군민이 보여준 따뜻한 연대와 나눔의 정신을 되새기며, 복지를 통한 지역 회복과 통합의 의미를 더했다. 지역 내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기획·운영되는 이번 박람회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웃사랑 유공자 표창 ▲사회복지기관 홍보 및 체험 ▲노인·장애인·아동·청소년 복지상담 ▲복지제도 안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

행되었으며, 군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하는 나눔장터 및 먹거리 부스를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행사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추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스탬프 투어, 포토존, 복지 체험 이벤트 등 군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오도창 군수는 “군민들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접하고, 나눔의 의미를 함께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윤석 기자

대구시민 ‘단디’ 돌보겠습니다! 통합지원협의체 출범

대구광역시시는 6일 동인정사 2층 상황실에서 ‘대구광역시 통합지원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의료·요양·돌봄 등 각 분야 전문가 2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통합지원협의체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 준비와 계획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서, 통합돌봄 정책의 공식 자문기구 역할을 한다. 이 정책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 돌봄, 주거 등의 서비스

를 지자체가 직접 제공하거나 연계해 통합 지원하고,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구시는 급속한 고령화, 1인 가구 및 장애인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료, 복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한자리에 모았다. 협의체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회, 한의사회, 간호사회, 약사회 등 의료단체를 비롯해 사회복

지협의회, 지역사회센터협회, 시니어클럽협회, 재가노인복지협회, 장애인복지관협회 등 복지단체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15개 기관이 참여한다. 앞으로 협의체는 ▲통합돌봄 지역계획 및 실행계획 자문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성과 점검 및 제도 개선 ▲민·관 협력 활성화 등을 담당하게 된다. 발대식에서는 대구형 통합돌봄 브랜드 ‘단디돌봄’의 추진 방향과 기관별 역할을 공유했다. ‘단디돌

봄’에서 ‘단디’는 경상도 방언으로 ‘꼭꼭’, ‘확실히’라는 의미로, ‘단 한 번 신청으로 살던 곳에서 돌봄 받는 Daegu’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대구광역시 통합돌봄 추진단(TF)’을 구성하고, 대구형 통합돌봄 연구용역, 선진지 견학, 통합돌봄 정책 포럼,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단디돌봄’ 추진계획을 통해 총 91개의 돌봄 서비스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한윤석 기자